

KINU 통일나침반 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2016. 01.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북한연구실 실장)
김석진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박영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홍 민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정성윤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홍석훈 (기획조정실 기획부장)
오경섭 (연구관리본부 연구부장)

2016. 01.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 | |
|------------------------------|----|
| I. 전반적 특징 | 1 |
| II. 2015년도 평가 | 5 |
| 1. 총평 | 5 |
| 2. 정치 | 6 |
| 3. 경제 | 6 |
| 4. 사회 | 7 |
| 5. 군사 | 8 |
| 6. 대남 | 9 |
| 7. 대외 | 9 |
| III. 2016년도 과업 및 정책 전망 | 10 |
| 1. 정치 | 10 |
| 2. 경제 | 11 |
| 3. 사회 | 16 |
| 4. 군사 | 19 |
| 5. 대남 | 20 |
| 6. 대외 | 22 |
| IV. 정책적 함의 | 24 |
| 1. 정세판단 유의사항 | 24 |
| 2. 대북정책 추진방향 | 26 |
| 부록. 2016년 북한 신년사 원문 | 29 |

I. 전반적 특징

- 제7차 당대회에 총력을 기울이는 전투적 구호 제시
 -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전투적 구호로 제시
 - 제7차 당대회가 당의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총화하고 ‘위험한 설계도’를 펼쳐놓는 ‘역사적 분수령’의 자리임을 강조
 - 전략적 노선이나 핵심 정책방향에 대한 언급은 제7차 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생략한 채 일반적인 과업만 열거
 - 한편 2016년도 2015년에 이어 ‘전투적 구호’와 대남 구호 두 개로 제시 (※ 2012, 2013, 2014년에는 전투적 구호만 제시)

| 연도 | 전투적 구호 | 대남구호 |
|------|---|--|
| 2012 |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 - |
| 2013 |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자! | - |
| 2014 | 승리의 신심 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자! | - |
| 2015 |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 나서자! | 조국해방 70돛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의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
| 2016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 나가자! | 내외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가자! |

- 의도적인 ‘핵’ 관련 언급 자제와 경제 우선의 과업 및 제7차 당대회 성공적 개최 제시
 - 제4차 핵실험을 염두에 두고 핵무기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경제부문 과업을 우선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언급
 - 전력, 금속공업, 농산·축산·수산, 경공업, 건설, 경제관리 등 세부적으로 과업을 언급하였으나, 중장기 정책은 제7차 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언급하지 않음.
 - 인민생활 문제를 국사 가운데 ‘제일 국사’로 표현, 경제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2016년도 포함 최근 3년간 과업 제시 순서는 다음과 같음.

| | 2014 | 2015 | 2016 |
|---|-----------|------------|----------------|
| 1 | 전체목표 | 전체목표 | 전체목표 |
| 2 | 경제 | 당사업 | 경제 |
| 3 | 사회문화 | 국방 | 당사업 |
| 4 | 국방 | 과학기술 | 국방 |
| 5 | 당사업 | 경제 | 사회문화 |
| 6 | 사상 | 사회문화 | 제7차 당대회 |
| 7 | 간부 | 간부 | 사상 |
| 8 | 대남 | 대남 | 대남 |

- 건설·경제·체육 등 가시적 성과 중심의 전년도 평가
 - 전년도 평가에서 2015년 신년사와 달리 건설, 경제, 체육 등에서의 성과를 우선적으로 언급
 - 건설부문의 각종 건설 실적, 경제부문에서의 현대화·정보화 및 인민생활 향상, 체육부문에서의 국제경기 우승 등 가시적 성과 제시 주력

- 2015년 신년사 성과 부분 언급에서 과학 및 교육 중시, 혁명전통 교양 등을 짧게 언급했던 것과 대비
 - 2015년 당창건 70주년 행사에서 펼쳐진 군사 퍼레이드를 “핵폭탄을 터뜨리고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린 것보다 더 큰 위력”이라고 자평
 - 또한 2015년 8월 목함지뢰 도발을 “전쟁의 위험을 막고 공화국의 존엄과 세계 평화를 영예롭게 수호”한 성과로 언급
- 노동당시대·자강력제일주의·백두산대국 등 새로운 조어 등장과 강조
- 올해 신년사에 등장한 ‘백두산대국’은 2014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3주기를 맞아 등장한 이후 3대 세습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김정은시대 조어로 최근 부상
 - ‘자강력제일주의’는 올해 신년사에 처음 등장, “자기의 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설명
 - 문맥상 전통적인 ‘자립’, ‘자위’, ‘자주’의 뜻을 통합한 조어로 정치·경제·대외·군사 등에서 ‘핵’을 기축으로 주민 자긍심 고취와 체제결속용으로 제시
- 다양한 ‘청년’ 관련 키워드의 등장과 청년 중시 강조
- ‘청년강국’, ‘청년영웅’, ‘청년돌격정신’, ‘청년문화’, ‘청년전위’ 등 다양한 청년 관련 수사들이 등장
 - 2015년 10월 당 창건 70주년 기념 연설에서 당 정책 3대 전략으로 강조했던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연속선상
 - ‘청년’이 정치·경제·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강력한 정책 키워드로 등장

- 시장세대를 체제 보위세력으로 강력하게 결속하고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현장에 동원하기 위한 담론

○ 제4차 핵실험 염두에 두고 원칙적인 수준의 대남정책 제시

- 2015년 신년사에서 최고위급회담(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한 것과 비교할 때, 올해는 제4차 핵실험을 염두에 두고 남북대화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

- 조국통일 3대원칙,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토대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2015년 8월 남북고위급 접촉의 합의 정신에 역행하거나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

- '반통일세력'에 대해 많은 비중을 두고 언급, 2015년에 비해 적극적인 대화보다는 다소 방어적 관점에서 대남부문 언급

○ '핵억제력 강화' 및 '병진노선'에 대한 언급없이 대미 평화협정 체결 촉구

- 평화협정 체결 제의 무시, 대조선적대시 정책 지속, 인권공세 등을 근거로 대미 비난

○ 신년사 발표시간 및 형식 변경

- 올해 신년사, 이례적으로 오전이 아닌 정오(우리시각 12:30, 평양시 12:00)에 발표. 2015년 9시 30분, 2014년 9시, 2013년 9시 발표

- 자료화면을 사용하는 등 메시지 전달 방식 쇄신, 올해 처음으로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각종 자료화면 사용

- 2015년 신년사부터 다소 정제된 언어 사용

II. 2015년도 평가

1. 총평

- 2015년을 “뜻깊은 사변들과 경의적인 성과들로 수놓아진 장엄한 투쟁의 해,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친 승리와 영광의 해”로 자평
 - 특히 “조선로동당 일흔돐을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럽고 의의 깊은 혁명적 경사로 빛내였”음을 강조
- 전체적으로 2015년도(전년도)에 대한 성과 언급은 이례적으로 다양한 소재로 전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언급
 - 언급 순서는 성과총평 → 건설 → 경제 → 체육 → 당창건 70주년 → 대남 → 청년 등의 순서
 - 2015년 신년사에서는 전년도 평가를 성과총평 → 국방 → 경제(건설) → 체육 등을 상대적으로 짧게 언급했던 것과 대조
 - 올해는 건설 실적, 경제(본보기 공장), 체육경기 성과 등 주민들에게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부문을 우선하여 언급
 -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당창건 70주년 행사를 “핵폭탄을 터뜨리고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린 것보다 더 큰 위력”으로 평가한 부분
 - 또한 2015년 8월 목함지뢰 도발로 촉발된 상황을 “공화국의 존엄과 세계평화 수호”로 평가한 부분

2. 정치

- 대내적으로 2015년 10월 당창건 70주년 계기로 김정은과 당을 중심으로 통치 능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
 -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럽고 의의깊은 혁명적 경사로 빛내었”다고 평가
 -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군인과 인민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및 ‘군민협동작전’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 대외적으로 당 70주년 행사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과 군사적 위력을 과시했다고 평가
 -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된 당창건 일흔돐 경축행사를 통해” 당을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의 위력’과 ‘주체조선의 양양한 전도’를 세계적으로 과시했다고 자찬
 - 특히 당창건 70주년 행사에서의 군사 퍼레이드를 “핵폭탄을 터뜨리고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린 것 보다 더 큰 위력”이라며 자신감 표명

3. 경제

- 경제 분야에서는 “전반적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진격로를 열었다”고 자평
 -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주요 건설사업 성과 치하

- 금속공업의 주체화, “지식경제 시대의 본보기 공장, 표준 공장” 건설,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 등 산업부문 설비투자 실적도 자랑
- 반면 농업과 대외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으며, 이는 실제로 이들 분야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일 것
 - 2015년 봄 극심한 가뭄의 영향으로 농업생산이 약간 줄었을 가능성
 - 중국의 성장 둔화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다소 감소했으며 그 여파로 대중국 수입도 감소
 - 지난 몇 년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한 경제개발구 사업도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

4. 사회

- 체육부문에서의 국제경기 성과를 군대와 인민들의 전투적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
 - 북한은 동아시아컵 여자 축구에서 우승을 비롯하여 2015년 한 해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90여 개를 획득했다고 밝힌 바 있음.
- ‘청년’을 성과 부문에 이례적으로 많은 분량으로 언급
 - 2015년은 “청년전위들이 당에 대한 충정과 영웅적 투쟁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친” 해로 평가
 - 특히 청년들이 “당이 정해준 조선혁명의 침로 따라”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과 청년문화를 창조했다고 평가, 2015년 당창건 70주년에 맞춰 펼쳐진 각종 건설사업에서의 청년 역할 치하

5. 군사

- 당창건 70주년 행사의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 군사적 위력 과시 평가
 - “10월 경축광장에 펼쳐진 격동적인 화폭들”은 “일심단결과 총대를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투쟁하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힘찬 진군”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

-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을 적대세력의 도발을 막아낸 군의 위력으로 평가
 - “적대세력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하여 무력충돌로 치닫던 일촉즉발의 위기를 평정하고 전쟁이라는 재앙의 난파도 속에서 조국의 존엄과 안전을 지켜낸 것은 군민대단결의 거대한 힘,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진막강한 위력”

- 각종 경제건설 부문에서의 군의 역할 치하
 - 2015년 군대와 인민은 당의 영도와 백두혁명 정신, 군민협동작전으로 발전소, 협동농장 등 업적을 이루었고, 공화국 존엄과 세계평화를 수호하였다고 자평함

- 인민군대가 당의 영도 하에 인민의 협업과 부강변영을 위한 “총공격전” 수행으로 정치사상사업 확대와 실전훈련 강화로 “무적의 강

군”으로 준비되었다고 자평함.

6. 대남

- 2015년 남북관계에 대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평가
 - 조국해방 일흔돌을 맞아 온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것을 호소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평가
 - 그러나 조국통일과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는 반통일세력들은 전쟁책동에 광분하면서 교전 직전의 위기 사태를 조성했다고 비난
 - 남조선당국은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의 흐름에 역행하여 북한의 체제변화와 일방적인 제도통일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면서 남북한 간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켰다고 비난

7. 대외

- 전쟁의 위협을 막고 북한체제의 존엄과 세계평화를 수호했다고 자찬
 -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 대조선적대시 정책, 인권공세 등을 이겨냈다고 평가

Ⅲ. 2016년도 과업 및 정책 전망

1. 정치

- 지난해에 이어 사상과 국방을 중심으로 한 ‘정치군사적 힘’을 강조하는 정책이 지속
 - ‘사회주의 정치사상 진지’ 및 ‘방위력’ 강화 정책 지속 의사 표명

-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 위한 대중적 사상 교양 사업 지속
 - 2015년에 이어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할 것을 제시
 - 집중 교양사업의 방식으로 “당 제7차 대회를 맞으며 온 나라가 양양된 정치적 분위기로 세차게 끓어번지도록 정치사업, 화선식 선전선동사업” 제시

- ‘인민중시’ 정책에 맞게 권력기관 및 관료들의 헌신 요구
 - “당조직들과 국가기관들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현하여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의 정치적 생명과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끝까지 돌봐주어야” 함을 강조

- 제7차 당대회를 관료들의 규율 문제와 과오를 바로잡는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을 언급
 - 올해 당사업 및 간부 관련 언급에서 “일군들 속에서 일심단결을 좀먹고 파괴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도 높게” 진행할 것 제시

- 지난해에 이어 군을 “당의 군대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4대 강군화 정책의 지속을 강조
 - 2015년 신년사에서 제시한 북한 군사력 강화의 4대 전략적 노선인 ‘정치사상의 강군(強軍), 도덕의 강군, 전법의 강군, 다병종의 강군’ 정책 더 강화할 것 요구
 - 이를 위한 방법으로 “훈련의 실전화, 과학화, 현대화를 종자”로 한 훈련열풍 제시
- 사상교양 강화, 당 일군들의 세도 척결, 인민 중시 정치, 당의 군대 강화 등 지난해의 논조와 유사
 - 다만, 제7차 당대회까지 대대적인 당 조직체계 정비, 당증 재발급, 당 규율 조사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정치적 쇄신 작업이 예상된다.

2. 경제

- 2016년 신년사에서는 각 분야 과업 중 경제 분야를 가장 먼저 언급하였고 가장 강력히 강조하였으나 중장기 경제정책 및 노선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음.
 -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겠다는 방침을 천명
 - 중장기 경제정책이나 경제 발전계획 등은 제7차 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신년사에서는 현실적으로 요청되는 올해 과제만 제시

- 경제 분야에서 전통적인 “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이 앞장 서야 함을 강조하였고, 특히 전력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업으로 제시
 - “전력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
 - 전력문제 해결은 매년 신년사에서 언급되는 주요 주제이지만 올해 신년사에서는 최우선 과업으로 특별히 강조

- 전력문제 해결방안을 비교적 현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큰 성과를 올리는는 어려울 것
 - 과거에는 신규 수력 발전소 건설을 중점 추진했으며 2015년에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 등 중대형 발전소를 완공
 - 그러나 수력발전소는 기상여건에 따라 전력생산이 불안정하고 발전소 위치가 전력 수요지로부터 너무 멀다는 단점이 있어 전력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
 - 이번 신년사에서는 기존 발전소의 정비보강과 정상 가동, 단천발전소 건설, 자연 에너지 이용, 전기 절약, 화력발전소로의 석탄 공급 증대 등 북한이 현 상황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제안
 - 그러나 기존 발전소의 설비와 송배전 시스템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 정비보강을 하더라도 전력생산을 크게 증대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
 - 석탄은 주요 외화벌이 원천인데, 국제 석탄가격 하락에 따른 외화 수입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수출물량을 크게 늘리고 있어 국내 화력발전소로의 공급 증대도 어려울 전망

- 금속과 철도운수 부문의 과업은 전통적 산업정책을 답습
 - 금속공업 부문에 대한 국가적 보장(즉 원료자재 공급과 설비투자 보장)과 금속공장의 주체화, 현대화를 통한 철강 생산 증대 강조
 - 금속공업의 주체화란 북한 내에서 생산가능한 무연탄을 주요 연료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북한 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코크스를 이용하는 철강산업의 국제 표준보다 훨씬 비효율적
 - 철도운수 부문에서는 규율 강화를 통해 정상운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전력문제 해결, 철강재 생산 증가 등 선행 과제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철도 정상화도 가능

- “인민생활 문제를 천만가지 국사 가운데 제일 국사로 내세우고 있다”고 말하면서 농수산업 및 경공업 분야 과업 제시
 - 지난해 신년사에서 특별히 강조했던 농산, 축산, 수산 3대 부문의 혁신을 다시 언급했으며, 세부 과제도 과학 농법, 기계화, 온실, 양어장 등 지난해와 비슷하게 제시
 - 경공업 분야에 대해서는 공장, 기업소 현대화, 원료자재 보장대책 수립,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생산 등을 주요 과업으로 제시
 - 농수산업과 경공업 분야의 성과는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제관리방법 개혁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 농수산업과 경공업은 최근 북한에서 상당히 발전한 시장을 이용하기가 용이하므로 경영단위(주요 협동농장과 경공업 공장)의 자율성 확대와 물질적 인센티브 부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경우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 가능

- 건설 부문 과업은 “당의 건설방침과 대건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 중요 생산시설들과 교육문화시설, 살림집들”을 건설해야 한다고 추상적으로 언급
 - 2014년과 2015년 신년사에서는 세부 건설사업 과제(청천강발전소, 고산과수농장, 세포지구 축산기지, 미래과학자거리 등)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으나 이번에는 일반적 과제만 추상적으로 제시
 - 김정은이 집권 이후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마무리되었으므로 2016년에는 건설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 7차 당대회를 계기로 사회적 동원을 늘려 새로운 건설사업을 시작할 가능성도 존재

- 과거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중시 방침도 계속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안은 모호
 - “주체공업,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위력을 강화”한다는 전통적 경제노선과 현대 과학기술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자는 요구는 서로 모순

- 경제관리방법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내각과 국가경제기관들에서 경제작전과 지휘를 결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
 - 또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조직전개”할 방침을 천명
 - 지난 몇 년 동안 북한당국은 농업부문에서는 ‘포전담당책임제’, 공업부문에서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도입하여 생산단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물질적 인센티브를 제고하는 정책을 실험 중

- 그러나 상세한 추진 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부분적, 실험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 농후
 - 일단 신년사의 언급은 개혁 실험을 계속 확대할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
 - 특히 공업부문에서는 전력부족과 낙후한 설비로 인한 기술적 제약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관리방법 개혁의 의미가 크지 않을 것
 - 단, 농업과 경공업 분야에서는 개혁 실험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어 향후 추이를 주목해 볼 필요
-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주목을 받았던 대외경제 사업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은 의외
- 북한당국은 몇 년 동안 경제개발구, 관광 등 신규 외화벌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다각도로 노력
 - 최근 중국의 성장 둔화와 석탄 사용 억제 정책으로 인해 대중국 광산물 수출이 부진해졌으며 러시아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러시아 송출 노동자의 외화수입도 줄었을 가능성이 높아 신규 대외경제 사업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
 - 그러나 이제까지 신규 대외경제 사업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며, 북한이 대남 및 대외 강경노선을 지속하는 한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은 것이 현실
 - 이번 신년사에서 대외경제 사업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런 현실적 어려움을 의식했기 때문일 수도

- 하지만 외화벌이의 중요성이 대단히 크므로 앞으로도 대외경제 사업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중단하지 않을 것

3. 사회

-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할 것을 사회·문화 총적 목표로 제시
 - 사회부문 과업 서두에서 “새 세기 교육혁명”을 언급한 부분은 2015년과 동일하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나 인재강국화를 강조했던 2015년과 달리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고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것을 제시하여 보다 현실적 목표 제시
- 체육을 대중화·생활화, 전문체육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국제경기에서의 성과를 강조
 - 2015년 북한은 90여개의 국제대회 메달 획득을 선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6년에도 국제대회 성과를 통해 체제 자긍심 고취 의도
- 문학예술부문에서의 “천만군민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불타게 하는 시대의 명작” 생산을 강조
 - 2015년 이례적으로 문학예술부문의 ‘침체’를 언급했던 것과 달리 2016년은 형식적인 수준에서의 언급에 그침.
- 2016년 신년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도덕기강’과 ‘문명한 생활

기풍'을 강조한 부분

- 2013년 등장 이후 강조해 온 '사회주의 문명국' 담론의 연장선상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완된 사회질서에 대한 도덕적 환기를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
- 2016년 신년사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당 제7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각 계층이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한 부분
 - 노동계급에게는 '경제강국 건설에서의 혁명적 대고조', 농업근로자에게는 '농업생산의 전변', 지식인에게는 '과학기술성과' 등을 주문
 -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연초부터 성과 중심의 각계각층 동원을 위한 언술
- 이전의 김정은 신년사와 달리 이례적으로 '청년' 역할 부분을 사회·문화분야에서 강조
 - "우리 당은 오늘의 총진군에서 청년들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될 것을 주문
 - 2015년 10월 당창건 70주년에 맞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등 경제부문에서 청년들의 역할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올해도 청년을 동원한 당대회 성과 올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판단
- 과거 신년사와 달리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국가·당의 이익 우선, 집단주의 경쟁을 강조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가적 이익, 당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앞선 단위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여 집단주의적 경쟁 열풍 속에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할 것을 강조

- 시장화와 확대·심화되면서 나타난 개인주의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당대회를 계기로 복고적인 '집단주의경쟁'을 강조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음.

○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 것을 강조

- '자강력'은 문맥상 "자기의 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 '자강력제일주의'는 자립, 자주, 자위, 그리고 주체 등 김일성 시대부터 사용해 온 용어와 의미들을 통합하는 새로운 조어일 가능성
- 한편으로 기존 '자력갱생'을 대체하는 용어로도 해석이 가능
- 주민들의 외부세계, 외국 물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체제에 대한 자긍심이 낮아지는 것을 경계하는 뜻에서 제기한 것으로 보임.

○ 2016년도 신년사에서 사회·문화 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2013년 김정은의 신년사 직접 연설이 시작된 이래 사회·문화 분야 언급이 대폭 확대된 부분

- 김정은 정권 들어 '인민'에 대한 강조의 연속선상, 북한 인권 관련 국제적 비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각별히 사회분야에 대한 언급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됨.

○ 2016년도 신년사에서 나타난 사회·문화분야 강조점으로 보았을 때, 정책방향 및 구호는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인민중시', '청년

중시'가 보다 강조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에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강조하면서 건설·체육·관광 3대 부문을 각별히 강조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 노력한 연속선상에서 2016년에도 제7차 당대회에 맞춰 이들 부문의 성과를 최대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임.
 - 인구학적으로 중요한 연령층이 된 '장마당세대'를 체제 보위세력으로 확고하게 포섭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 담론과 정책이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등장할 가능성
- 올해 5월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대규모 신규 청년 당원 충원 및 사회에 대한 당적 규율을 새롭게 세우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전망
- 신규 당원의 대거 충원 과정에서 당규율 체계를 세우면서 이완된 사회기강 바로세우기 작업 진행 예상
 - 새로운 세대의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해 청년을 상대로 한 사상교양 강조

4. 군사

- 당의 군대로서 당의 유일적 영군체계 강조
- “전군을 당의 유일적령군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 당군, 죽어도 혁명신념을 버리지 않는 견결한 당의 군대로 더욱 강화발전”시킬 것을 강조
- 4대강군화와 훈련의 실전화·과학화·현대화를 통한 훈련열풍 강조

- “김일성-김정일 군사전략전술과 영웅적적 전투정신, 완벽한 실전 능력을 소유한 현대전의 능수, 진짜배기싸움군들로 준비”
 - 2015년 신년사를 통해 제시된 군력강화의 4대 전략적 노선(정치 사상의 강군, 도덕의 강군, 전법의 강군, 다병종의 강군)을 ‘4대 강군화’로 재차 강조
- 군수공업부에서 ‘다양한 군사적 타격수단’ 개발 강조
-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더욱 높이며 군자리혁명정신을 발휘해 적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우리식의 다양한 군사적 타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
 - ‘다양한 군사적 타격수단’은 핵무기 관련 무기의 소형화·경량화·다종화로 해석이 가능
 -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강조한 만큼 김정은 정권 들어 계속되고 있는 군수공업 중심의 현지도가 지속될 전망

5. 대남

- 장기적 대남전략 목표인 한미동맹 약화 추구
- 민족을 분열시키고 통일을 막는 것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라고 규정
 -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 가자!’는 구호 제시
 - 남북관계와 조국통일문제는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민족끼

리의 이념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

- 남한당국자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모략소동에 매달리고 민족문제와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청탁 놀음을 한다고 비난
- 반통일세력의 사대매국적인 외세와의 공조책동에 반대하여 투쟁할 것을 주장

○ 미국과 남한당국은 침략전쟁연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

- 미국은 침략적 대아시아지배전략과 반공화국전쟁책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
- 미국과 남한당국은 침략전쟁연습을 걷어 치워야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군사 도발을 중지해야한다고 주장

○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에 대한 원칙적 입장 제시

- 북한은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
- 조국통일3대원칙과 남북선언들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합의를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 나가야한다고 주장
- 남한당국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해야한다고 지적
- 남한당국은 2015년 남북고위급 긴급접촉의 합의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역행하거나 대화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

- 핵보유와 남북관계 개선 병행 추진
 - 신년사 직후 제4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감행함으로써 핵을 기축으로 한 대외관계 설정과 내부 통치 의사를 강력 표명
 - 제7차 당대회 이후인 하반기에 대화공세를 펼치면서 남북대화과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가능성
- 핵무기 고도화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전술적으로 활용
 -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면적으로 대화와 도발을 오가는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전술적으로 활용할 가능성
 - 북한은 한국정부가 핵무장을 묵인하는 조건에서 남북대화과 관계 개선 추진 의도
 - 북한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통해 한국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6. 대외

- 전체적으로 2015년과 비슷한 입장을 되풀이
 - 북한의 안보 위협 원인을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음모라고 주장
 - 남한이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민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
 - 북한은 자신들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자신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 표현

○ 2015년에 비해 높아진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

- 2015년 신년사에 이어 미국의 인권 압박에 대해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 미쳐 날뛰고 있다’고 표현하며 강도 높은 비난 되풀이
-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외면하여 한반도 긴장이 격화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
- 대미 비난의 지속은 2015년 12월 17일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2년 연속 총회에서 채택된 것에 대한 강한 저항으로 해석
- 김정은이 직접 평화협정 문제를 제기하여 향후 북미 평화협정 논의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핵능력’과 ‘핵위협’에 대한 직접적 언급 자제

- 2014년 신년사에서 ‘적대 세력들의 핵전쟁 책동과 위협’을 언급하였고 2015년에는 ‘핵 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강조
- 올해 신년사에는 ‘한반도가 핵전쟁 발원지’이며 미국과 남조선이 매년 대규모 ‘핵전쟁연습’을 하고 있다는 상투적 비난만 하고 핵 위협 및 핵 능력 과시와 같은 도발적 언사는 자제
- 향후 있을 핵실험 및 핵 관련 계획을 은폐하고 기만하기 위한 전술 차원에서 언급을 자제

IV. 정책적 함의

1. 정세판단 유의사항

- 5월 제7차 당대회까지 대내 정치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돌출적인 사태가 발발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과도한 노력동원 및 속도전 사업으로 평양 아파트붕괴와 유사한 사고 발생 가능성
 - 당대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 및 김정은 정권 권력 2기 진영 구축 과정에서 충성경쟁이 과열되어 권력 암투 표면화 가능성 잠재
- 이번 신년사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5월에 열릴 제7차 당대회에서 획기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
 - 과거 전통적 사회주의 시대의 당대회에서는 중장기 경제계획(5개년 계획 또는 7개년 계획)을 흔히 발표한 바 있으며, 경제계획 외에도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 존재
 - 이번 신년사에서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한 만큼 획기적인 경제발전 방안을 내놓을 필요성 존재
- 신년사에서 언급된 정책만이 아니라 언급되지 않은 정책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의
 - 대외경제 분야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외화벌이의 중요성이 워낙 크므로 외화수입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계속할 것
 - 시장과 사경제의 발전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지만, 김정

은 집권 이후 시장과 사경제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계속 견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 농후

- 시장과 사경제를 허용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공식적 및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재정수입 보충이 가능하기 때문

○ 북한당국이 원하는 국책 투자·건설사업을 확대하려면, 재정 및 금융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

- 북한당국은 2015년 12월에 ‘재정은행 일꾼대회’를 개최하여 재정 및 금융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
- 북한당국으로서 재정책도를 정비해 재정수입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크며, 비공식 경제에 머물러 있는 저축자금을 공식 금융 시스템 내로 동원하여 국영기업 투자자금으로 쓰기를 원할 것
- 그러나 북한당국, 국가기관, 국영은행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수준이 워낙 낮아 북한당국이 재정 및 금융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

○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재차 강조하며 핵기술과 이동타격수단 개발을 통해 대미 평화협정 체결과 김정은 정권 안전 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핵무기의 고도화, 이동식 타격수단 개발, 장거리 로켓 실험을 통해 미국과 직접대화를 시도하면서 북·미간 평화조약 체결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대남 강경정책을 통한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전술 지속 예상
 - 제4차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의 확성기 방송 재개를 이유로 북한 역시 2016년 대남 강경정책을 일정부분 취할 것으로 전망
 - 또한 2016년 상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빌미로 북한의 군사적 긴장상황 연출과 NLL지역과 DMZ을 중심으로 대남 군사 도발 가능성 존재

2. 대북정책 추진방향

- 제7차 당대회 이후 올해 하반기, 남북관계 및 국제관계에서 나타날 김정은 행보에 대한 예측력을 강화할 필요
 - 김정은 정권 기반을 확고히 하는 대내 목표에 방점이 있는 당대회 이후, 김정은의 대외적 행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및 대응책을 사안별로 구상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북측이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 분야 교류협력 사업 발굴 필요
 -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당분간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교류협력 사업 발굴 및 준비 필요
 - 북측의 개발수요, 우리 측의 경제적 필요,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고려를 종합하여 남북 간의 공통분모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계속 경주

- 대북지원 사업의 질적 내용을 업그레이드하고 간접 채널을 활용
 - 북한의 식량사정이 다소 나아진 점, 북한당국의 전용 가능성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과거와 같은 대규모 식량 및 비료 지원은 곤란
 - 대신에 농업, 보건의료, 환경, 교육 등 북한의 인적자원 보호 육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의 개발협력 필요
 -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도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활용한 간접적 지원 사업은 실행 가능

- 튼튼한 안보와 신뢰 프로세스 두 트랙 정책 확고하게 견지할 필요
 - 대남 군사적 긴장상황 연출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대내적 결집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남북관계에 있어 적실한 군사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냉정하게 대처하고 '신뢰 프로세스'의 대북원칙을 잃지 않고 일관된 대북기조와 한반도 통일 대비를 추구해야 함.

- 북한 핵무기 억지전략 수립·실행
 -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및 핵 관련 군사적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핵우산·재래식무기·미사일방어 등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
 - 정부는 킬체인·KAMD 구축 사업을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상황에 맞게 재검토

- 핵실험 관련 국제제재에 공조하면서 대북정책의 명확한 입장 견지
 - 정부는 당분간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에 적극 참여하고 공조하면서 미·중·일 등과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 실행 논의

-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남북대화과 교류협력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핵개발을 지속할 경우 금강산관광 및 남북경협을 재개하기 어렵다는 원칙적 입장 표명할 필요

부록. 2016년 북한 신년사 원문

2016년 북한 신년사 발표(1.1)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05(2016)년 새해를 맞으며 하신 신년사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김정은 육성〉

친애하는 동지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과 조국력사에 빛나는 리정표를 아로 새긴 승리자의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새해 2016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사회주의조선의 영상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새해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나는 영원히 당과 주체의 한길을 걸어갈 억척의 신념을 안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드리며 모든 가정들에 화목과 정이 넘쳐나고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으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남녘의 겨레들과 해외동포들, 자주와 정의,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외국의 벗들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2015년은 뜻깊은 사변들과 경이적인 성과들로 수놓아진 장엄한 투쟁의 해,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친 승리와 영광의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똥을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럽고 의의깊은 혁명적경사로 빛내였습니다.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노도처럼 펼쳐나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백두의 혁명정신과 과감한 군민협동작전으로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당의 사상과 정책이 구현된 만년대계의 창조물들과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이 수없이 일떠서 1년을 10년 맞잡이로 비약하며 전진하는 조국의 기상을 과시하였습니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금속공업의 주체화에서 큰걸음을 내짚었으며 이르는 곳마다에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들을 일떠세우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실현하여 전반적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놓았습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속에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는 자랑찬 현실이 펼쳐졌으며 사회주의바다향기, 과일향기가 넘쳐나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미더운 여자축구선수들을 비롯한 우리의 체육인들은 국제경기들에서 승리하여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전투적사기를 더욱 북돋아주었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된 당창건 일흔돛 경축 행사를 통하여 우리는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과 주체조선의 양양한 전도를 만천하에 과시하였습니다.

10월의 경축광장에 펼쳐진 격동적인 화폭들은 핵폭탄을 터뜨리고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린것보다 더 큰 위력으로 누리를 진감하였으며 일심단결과 총대를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투쟁하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힘찬 진군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과 민족앞에 닥쳐온 전쟁의 위협을 막고 공화국의 존엄과 세계평화를 영예롭게 수호하였습니다.

적대세력의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책동으로 하여 무력충돌로 치닫던 일촉즉발의 위기를 평정하고 전쟁이라는 재앙의 난파도속에서 조국의 존엄과 안전을 지켜낸것은 군민대단결의 거대한 힘,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진막강한 위력이 안아온 빛나는 승리입니다.

지난해를 우리가 더욱 기쁜 마음으로 돌이켜보게 되는것은 주체혁명 혈통, 신념의 대를 굳건히 이어가는 우리의 청년전위들이 당에 대한 충정과 영웅적투쟁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펼친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우리 청년들은 당이 정해준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며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

신과 청년문화를 창조하였으며 만사람을 감동시키는 훌륭한 미풍들을 발휘하였습니다. 수백만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천겹만겹으로 뭉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들로 역세계 자라난것은 우리의 더없는 긍지이고 자랑이며 커다란 승리입니다.

지난해의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백두의 녀과 기상을 안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마련된 결실이며 그것은 조국과 혁명에 바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고귀한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창조로 들끓고 기적으로 충만된 지난 한해를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속에서 보내며 우리 당은 애국충정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그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견인불발의 투쟁모습을 가슴뜨겁게 목격하였으며 인민들과 병사들의 믿음에 찬 시선과 진정어린 목소리에서 더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결사옹위하는 무적의 군대와 위대한 인민이 있기에 우리는 천만산악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대업도 반드시 이룩할수 있다는것, 이것이 지난해 투쟁의 자랑스러운 총화입니다.

나는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필승의 신념을 안고 조선로동당의 위업을 헌신적으로 받들어 지난해를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빛내인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삼가 드립니다.

동지들!

올해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해입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놓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의 돌파구를 열자면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이 총진격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야 합니다.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당적, 전국가적힘을 넣어야 합니다. 지금 있는 발전소들을 정비보강하고 만부하로 돌려 전력생산을 최대한 늘이며 단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하여 발전능력을 새로 더 조성하기 위한 투쟁과 자연에너지기를 적극 리용하여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된

전기를 절약하고 효과있게 쓰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석탄 공업부문에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합니다.

금속공업부문에 대한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강하게 세우고 김철과 황철을 비롯한 금속공장들에서 주체화, 현대화의 성과를 확대하여 철강재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철도운수부문에서 규률을 강화하고 수송 조직과 지휘를 개선하여 열차의 정상운행을 보장하며 철도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있습니다.

농산, 축산, 수산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을 개선하는데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농업부문에서 우량품종과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며 영농공정별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알곡생산계획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당의 부름 따라 일떠서고있는 축산과 수산부문에서 생산을 빨리 장성시키고 전국도처에 건설한 양어장과 남새온실, 버섯생산기지들이 은을 내게 하여 인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여야 합니다.

경공업부문에서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세워 생산을 활기있게 내밀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건설은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며 우리 당의 인민적 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보람차고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건설부문에서 당의 건설방침과 대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 중요생산시설들과 교육문화시설, 살림집들을 시대의 본보기, 표

준이 되게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일떠세우며 건설의 대번영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투쟁목표를 통이 크게 세우고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제품의 질제고와 설비, 원료자재의 국산화를 중요한 정책적문제로 틀어쥐고 힘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전투를 본격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 일터와 마을들을 알뜰하게 꾸리며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고 대기와 강하천, 바다오염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합니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주체공업,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며 최첨단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야 합니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고 운영을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이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을 배우도록 하며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사회적기풍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내각과 국가경제기관들에서 경제작전과 지휘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부문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가는 원칙에서 경제사업을 혁신적으로 작전하고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조건이 불리하고 애로가 많을수록 경제

발전의 중심고리를 정확히 찾고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경제전반을 활성화해나가야 합니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조직전개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정치사상진지를 억척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

사상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여 전체 군인들과 인민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속깊이 새긴 사상의 강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그들이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온 나라가 양양된 정치적분위기로 세차게 끓어번지도록 정치사업, 화선식선전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일심단결은 주체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필승의 무기입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프락에 이어놓고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야 합니다. 당조직들과 국가기관들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현하여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의 정치적생명과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끝까지 돌봐주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민심을 틀어쥐고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일군들 속에서 일심단결을 쪼먹고 파괴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도높게 벌려야 합니다.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나가야 합니다.

인민군대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발

기하신 스무뚝이 되는 올해에 전군을 당의 유일적령군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군,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견결한 당의 군대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당이 제시한 4대강군화로 선관철에서 전환을 일으켜나아가야 합니다. 훈련의 실전화, 과학화, 현대화를 종자로 틀어주고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군인들을 김일성-김정일군사전략전술과 영웅적전투정신,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현대전의 능수, 진짜배기싸움군들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시대의 기수, 돌격대가 되어 당이 부르는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들마다에서 돌파구를 열어 제끼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여야 합니다.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은 혁명의 수뇌부와 사회주의제도, 인민의 생명재산을 노리는 계급적원썩들과 적대분자들의 준동을 맹아단계에서 짓밟개버리며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은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고 향토방위를 위한 만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군수공업부문에서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더욱 높이며 군자리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적들을 완전히 제압할수 있는 우리식의 다양한 군사적타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높이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고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지덕체를 겸비한 인재들을 키워내며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요구에 맞게 치료예방사업을 개선하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켜야 합니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들끓게 하고 전

문체육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국제경기들에서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들을 창조해나가야 합니다. 문학예술부문이 들고일어나 천만군민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불타게 하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합니다.

도덕기강을 세우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온 사회에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만아들답게 당의 사상과 위업을 맨 앞장에서 받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추켜들고나가야 합니다.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변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식인들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눈부신 과학기술성과로 강성국가건설을 떠밀어 나가며 로동당시대의 문명개화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선각자가 되고 기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오늘의 총진군에서 청년들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있습니다.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떠받드는 역센 기둥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강성국가 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일군들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고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며 인민을 위한 길에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어 부러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총북, 혁명의 유능한 지휘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단합된 힘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회의 본태와 대풍모를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표대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이며 사회주의의 위력은 곧 집단주의위력입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가적리익, 당과 혁명의 리익을 우선시하고 앞선 단위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며 집단주의적경쟁열풍속에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강성국가건설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은 가장 절박하고 사활적인 민족최대의 과업입니다.

조국해방 일흔돛이 되는 지난해에 우리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것을 호소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국통일과 북남관계개선을 바라지 않는 반통일세력들은 전쟁책동에 광분하면서 교전직전의 위험천만한 사태까지 몰아와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흐름에 역행하여 우리의 《체제변화》와 일방적인 《제도

통일》을 로골적으로 추구하면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이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것도 외세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과 그 추종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모략소동에 매여달리면서 우리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는 놀음을 벌려대고있습니다. 이것은 외세에 민족의 운명을 내맡기고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입니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또 가져다줄수도 없습니다.

온 겨레는 반통일세력의 사대매국적인 외세와의 공조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민족내부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공조》를 구걸하는 수치스러운 행위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입니다.

오늘 미국의 침략적인 대아시아지배전략과 무분별한 반공화국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 핵전쟁발원지로 되고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해마다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핵전쟁연습을 련이어 벌려놓으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북남관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습니다. 지난해 8월 사태는 북남사이의 사소한 우발적인 사건도 전쟁의 불씨로 되고 그것이 전면전으로 번져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위험천만한 침략전쟁연습을 걷어치워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군사적도발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위해 인내성있게 노력하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입니다. 그러나 침략자, 도발자들이 조금이라도 우리를 건드린다면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한 정의의 성전, 조국통일대전으로 단호히 대답해나설것입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에 토대하여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온 겨레는 그것이 하루빨리 리행되어 통일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기를 바라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부질없는 체제대결을 추구할것이 아니라 민족의 총의가 집대성되어있고 실천을 통해 그 정당성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지난해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의 합의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역행하거나 대화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

니다. 우리는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입니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요구를 한사코 외면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계속 매여달리면서 정세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갔으며 추종세력들을 내세워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미쳐날뛰였습니다. 그러나 적들의 그 어떤 모략과 책동도 삶의 터전이고 행복의 보금자리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빛내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의지를 꺾을수 없었습니다.

적대세력의 도전은 계속되고 정세는 의연히 긴장하지만 우리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변함없이 나아갈것이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책임적인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침략과 전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을 더욱 강화하며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모두다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아 갑시다.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합니다. (끝)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통일나침반 16-02

| | |
|-----|---|
| 발행처 | 통 일 연 구 원 |
| 발행인 | 최진욱 |
| 편집인 | 통일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 02-2023-8000 팩스 : 02-2023-8297 |
| 인쇄처 |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전화 : 02-2269-9917 |
| 인 쇄 | 2016년 01월 |
| 발 행 | 2016년 01월 |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